

탈북주민 상담소 산돌교회

직업소개 및 생활적응 위해 공동체 운동 펼쳐



지난 7일 갈월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통해 우의를 다진 탈북주민과 산돌교회 교인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탈북주민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앞장서고 있어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송우리 159-9번지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산돌교회(목사 김현동)는 인근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60여세대의 탈북주민들을 위해 전 교인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산돌교회 이광호(40) 집사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중인 일자리 연결해주기 사업은 탈북주민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현재까지 모두 20여명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다.

송우리 인근은 물론 멀리 영종면 소재 양문공단까지 일자리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산

돌교회 이광호 집사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직업 알선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탈북 주민이 더 많아 일자리 소개에 더욱 더 노력을 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알선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전문직종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특별한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제조업체 생산라인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매주 교회에서 예배와 점심식사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산돌교회 김현동 목사는 교인들에게 "탈북 주민은 외국인이라 아니라 민족이요 가족"이라며 "아가페

적인 사랑의 이문을 현실로 실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7일 일요일 예배와 점심식사 후에 갈월중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한 남북혼합 축구경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탈북주민들은 탈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과 이렇다할 일자리가 없어 축구화는 물론 운동화도 없어 교회에서 빌려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뜻있는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요구되고 있다.

또 입주한 주공아파트에는 가구와 식탁, 책상 등 필수적인 생활가구도 없어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산돌교회 김현동 목사는 "탈북 주민들이 앞으로 더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산돌교회내 탈북 주민상담센터를 개설해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우리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탈북주민들은 현재 60여 세대이며 이중 30여세대 50여명의 주민들이 산돌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돌교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탈북주민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에 나서고 있다.

탈북주민들을 도우려면 산돌교회(031-543-0159)나 이광호 집사(017-332-5436)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2일 송우택씨의 동료들이 송씨의 마라톤 완주를 축하하기 위해 송씨(右 두번째)와 부인(임명희, 右 첫번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마라톤으로 인생의 목표를 찾았죠”

송태구씨 춘천마라톤 완주 자축

지난달 24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04 춘천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를 완주한 송태구(39, 선단동)씨가 송우택씨의 동료들과 송우리 모음식점에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송태구씨는 "30km지점에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해 달랐다"며 "이번 마라톤 완주를 계기로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운동에는 별 소질이 없었던 송씨는 1년 전부터 동네를 뛰기 시작해 점차 운동량을 늘여 두 번의 풀코스를 완주하는 등 차분히 춘천마라톤을 준비했다고 한다.

“일상생활에 쫓겨 삶의 재미를

있었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다 문득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송씨는 마라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마라톤이 야 말로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동료들은 “송씨의 완주는 포천에서 처음있는 일이다”며 “이는 인간승리가 아니냐”고 송씨를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송씨는 “두 아들과 아내에게도 자랑스런 아버지라 남편이 되었다”며 “몸이 허락한다면 환갑 때까지 계속 달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기사제보: 김옥주 주부명예기자



포천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불조심 캠페인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지킴이상’

포천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최근 산림청장이 시상하는 ‘산림지킴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김영무 반장을 비롯해 모두 15명으로 조직돼 있는 포천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주야간 산불비상 근무 ▶불철 산불예방활동 ▶산불진화 ▶산불진화장비 활용 ▶산불방지제도 ▶산불요인 사전 제거 ▶산불발생 시 초동 및 야간 병출동 지상방제 및 가로수관리 등에 보여준 활약상이 인정돼 상을 수상했다.

대원들은 특히 산불진화 출동이

적은 오전시간이나 전날 비가 내려 산불위험이 없는 날을 활용, 산불 예방 경고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산불방화선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에도 참여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화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산불방지제도 ▶산불요인 사전 제거 ▶산불발생 시 초동 및 야간 병출동 지상방제 및 가로수관리 등에 보여준 활약상이 인정돼 상을 수상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2회 포천시 체육회장이 축구대회

포천시 축구협회는 제2회 포천시 체육회장이 축구대회를 지난 6일 오후 6시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포천시 체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박상욱 포천시 축구협회 회장은 “폐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를 치르길 바란다”며 “참가한 선수들은 매 경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축구발전 공로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치러졌는데, 박현씨와 이준구씨가 박상욱 포천시시장의 표창패를 임병안씨와 조오현씨는 최대포천시회의회의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또한 박상욱 포천시 축구협회장은 포천시축구심판위원회와 포천시여성축구단에게 방한복을 기증하는 행사를 갖는다.

이번 대회는 관내 23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발전과 및 저변확대

를 위해 6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8일 동안 열전에 들어간 대회에서 조별리그는 전?후반 각 25분, 8강전부터는 전?후반 30분씩 진행된다. 또 8강전부터는 전?후반 각 10분씩 연장전을 치르며, 만약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날 개막경기는 선단드레곤즈 B팀과 한내팀이 접전 끝에 5대3으로 승리했고, 창단을 앞두고 처음 출전한 동교팀은 신북축구단에게 1대5로 무너졌다. 이밖에 선단드레곤즈 A팀과 일동축구사랑회는 득점 없이 비겼다.

이번대회에서는 평일 전 경기가 야간에 열린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관계자에 따르면 “포천종합운동장이 새로 단장한 이래 야간시설환용이 미흡했는데, 이번대회를 계기로 야간활용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2회 포천시 체육회장이 축구대회가 지난 6일 오후 6시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관내 23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8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동 정

‘포천의 얼’ 계승교육

변진수 포천교육장은 8일 청성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테마별 체험학습을 통한 ‘포천의 얼’ 계승교육에 참석 참가 학생 및 교사들을 격려하고 이번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확대간부회의 개최

최원일 포천경찰서장은 5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사무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경찰 지향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동절기 소방용수 정비 철저 지시

이대열 포천소방서장은 5일 화재가 증가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화재발생시 초동조치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 정비 철저 등을 지시하였다.

협의회 활동실적 평가 및 공적심사

윤정일 민주평등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장은 2일 수원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각시군협의회 활동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 31개시군 협의회 활동 실적 평가 및 공적을 심사했다.

Single PPM 품질혁신 설명회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일 포천시 여성회와 2층에서 실시한 Single PPM 품질혁신 설명회에 참석해 제품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7회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은 지난날 30일 포천반달아트홀 전시실에서 (사)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 주최로 개최된 ‘제7회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틀luit이 경로당 경로잔치

이동해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장은 1일 신북면 기지2리의 틀luit이 경로당에서 각 지회장 및 노인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로잔치에 참석해 노인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자원봉사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이병업 바르게살기 포천시협의회장은 2일 자원봉사단체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기도회 사무처장 포천시 방문

이광호 포천시재향군인회장은 5일 포천시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의 초도 방문 및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 재향군인회의 현안 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숯가꾸기 1일 체험

윤순옥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장은 8일 의제21회원 20여명과 광릉시협림(8일반 자소반)에서 열린 숯가꾸기 1일 체험행사에 참석해 비료주기 및 나무가꾸기 등을 실시했다.

도, 북부여성정책지도과정 일본연수

이문환 포천시가족·성상담센터소장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북부여성정책지도과정의 히로시마현 해외대학 일본어·일본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일본연수에 참가했다.

국토대청결운동

김재현 포천모범운동회장은 6일 용정사거리부터 반월사거리까지 회원 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실시된 국토대청결운동에 참가했다.



지난 3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이 게이트볼대회에 열광하면서 한 선수가 경기를 치르고 있다.

포천시체육회장이 게이트볼대회 盛了

포천종합운동장에서는 3일 선수 200여명과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이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시 게이트볼 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의 장과 시 문화함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관내 25개팀이 참가해 치러졌다.

경기는 먼저 예선경기를 치른 후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을 전후로 식전과 식후 경기로 진행된 경기에서 참수(회장 지오현)가 우급(회장 원유문)

을 14대 9로 누르고 우승했다.

3위는 2개팀으로 관내A팀과 관내 B팀이 각각 차지했고, 모범상은 산내팀이 협동상은 설문팀이 수상했다.

한편 개회식은 김영일 포천시체육회 교문의 개회선언과 포천시 체육회 관계자들의 축사로 이어졌다.

장영일 포천시게이트볼연합회장은 대회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즐겁게 대회에 임하길 바란다”며 “게이트볼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외국인이 아니라 민족이요 家族입니다.



김현동(산돌교회 담임목사)

이곳 송우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보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 안에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마 22:39절)

이제는 배운 아가페적인 사랑의 이문을 현실로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관심, 나눔, 희생, 사랑의 언어, 온유한 표정, 그들을 품을 넓은 가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

리의 변화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곳에 이웃이 된 형제요, 자매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통일은 점점 멀어질 뿐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의 염원은 허공 속에 소음으로 떠돌 뿐일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인이라 아니라 우리의 민족이며, 한 분되신 주님을

무료노인요양시설 분도마을 개원

뜻있는 분들의 지원으로 아름다운 요양시설 완성



무료노인요양시설 분도마을이 포천시지작동에서 지난 19일 축복식을 갖고 개원했다.

(재) 서울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노인요양시설 포천분도마을이 지난날 19일 포천시 자작동에서 축복식을 갖고 개원했다.

포천에서는 가난에 있는 지혜원에 이어 두 번째 무료노인요양시설로 개원한 포천분도마을은 30여명의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마련했다.

대지 2만 여평에 건평 600평 규모의 포천분도마을은 물리치료실과 대형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추고 노인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포천분도마을은 여러 독지가들의 마음이 모아져 개원하게 되었다.

중이다.

한편, 포천분도마을은 뜻 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수준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원은 ▶국민은행 219401-04-048694 ▶농협중앙회 175-01-171056 ▶우리는행 1006-001-211238 ▶우체국 0100552-01-003951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분도마을(031-539-05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중·고생 통일교육을 위한 관계관 간담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회장 윤정일)는 지난 5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18개 학교 중·고교 교감 및 윤리주임 등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고생 통일교육을 위한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중·고교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올바른 통일관 확립을 위한 특강과 현장체험 통일교육 참여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